

“쌀시장 우리가 지킨다” 여성농민단체 활동 가속화

여 93. 3. 5

학교·군대 급식 우리 식량화 촉구, 국제 로비단체 형성도 모색

미국 등 농수산물 수출국들의 쌀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농민단체의 집합체인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임순분, 이하 여농)이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농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전국 농민회 총 연맹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쌀시장 개방 반대 범국민 기구를 발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직적인 반대운동의 세부적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농은 쌀 소비 촉진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과 군대 급식의 우리 식량화 △소비주체인 주부 의식 교육 △국제적 연대를 통한 로비단체의 형성 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 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농이 추진하고 있는 쌀 소비 촉진운동은 단순히 쌀을 더 많이 먹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밀로 만든 분식의 확대를 막고 전통음식 전통 맛을 보존하고 개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 계획은 쌀로 만든 간식의 개발 보급과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량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유통구조의 개선을 골격으로 한다.

여농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행해야 할 것으로 군대급식에서의 쌀 소비와 학교 급식에서의 쌀 소비책을 들고 있다. 현재 식량의 주 소비체가 되고 있는 군대의 급식을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식량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여농의 입장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교급식의 완전 의무화 실현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농은 단순히 쌀을 더 많이 먹자는 것이 아니라 수입밀로 만든 분식의 확대를 막고 전통음식을 보존, 개발하자는 취지로 쌀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여농은 산지에 창고와 저온 처리장 대규모 축산물 처리장 등의 유통시설을 설치해 농산물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농민과 우리 시장 구조를 보호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측에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한편 도시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내 소비자 측면에서 쌀 소비를 촉진 시키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연대한 가운데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이 움직임은 수입 농수산물의 위해를 알리는 작업부터 실시한다.

이미 수입 농산물의 농약 검출 등 일련의 사건으로 수입 농산물의 신체 위해성 문제는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수출국이 장기간에 걸친 품질 개발을 통해 우리 기호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어 시장 잠식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우리 농산물 보호의 첫 걸음

으로 삼고 있다. 또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달 12일 한호섭 농협중앙회 회장과 호라우씨 미쓰구 일본 전국 농협중앙회 회장 우명친 대만 성농회 이사장 등 3개국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극동협력위원회 제5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반대

결의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여농도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은 윌리엄네이절 유럽공동체 농업연합대표(아일랜드)와 존 스탠슬 미국 로키 지역 농민 연합회 대표가 전국 농민대회 참석차 방한해 “미국 대농들만의 이익을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유럽은 물론 미국 소농들의 세계 기반을 잠식하는 것”이라며 “지구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쌀 생산을 늘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녹색지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입장이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전망된다.

여농의 사무국장 고은실(34) 씨는 “쌀 시장 개방은 식량의 무기화를 초래해 신식민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하며 “농민 생존권 문제 뿐만 아니라 민족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선 소비주체인 주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순 기자>